

지구촌 한류 현장



1 글 김용래 파리 특파원

서울시향 유럽투어 파리지 피날레 佛 관객 기립박수로 환호



사진 / 서울시향 제공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의 프랑스 파리 데뷔 무대이자 유럽투어의 피날레 공연이 지난 12월 1일 관객의 기립박수와 환호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향은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완벽히 연주해 파리 데뷔 무대에서 프랑스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 저녁 파리 센 강변 '메종 드 라 라디오'의 콘서트홀은 1천500여 명의 관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들어차 서울시향과 협연자인 피아니스트 김선욱을 맞았다.

서울시향은 스위스 제네바를 시작으로 루체른, 이

프랑스 파리 '메종 드 라 라디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에서 협연자인 피아니스트 김선욱, 지휘자 티에리 피셔와 시향 단원들이 연주하고 있다.

탈리아 우디네, 프랑스의 그르노블을 거쳐 유럽투어의 대단원인 파리에 도착했다.

윤이상 이 1978년 작곡한 '무악'은 우리의 전통 궁중무용인 춘앵무에서 영감을 받아 서양의 춤곡과 결합해 자신만의 음악으로 재창조한 작품이다.

무악의 동양적이면서도 전위적인 매력에 젖었던 관객들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김선욱과 시향이 협연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의 장엄한 스케일과 격정적인 연주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다.

김선욱의 피아노와 서울시향의 관현악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술래잡기를 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연주를 펼쳤고, 연주가 끝난 뒤 관객의 환호에 김선욱은 앙코르곡으로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선사했다. 시향의 파리 데뷔 무대이자 유럽공연 피날레의 절정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었다.

프랑스가 낳은 음악가로 바그너와 리스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베를리오즈의 작품을 파리 한복판에서 선보인다는 부담 속에서도 시향은 명장 티에리 피셔의 지휘 아래 열정적이고도 섬세하며 오감을 흔들며 깨우는 연주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환상교향곡의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열광적인 환호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관객들은 곧 일제히 박자를 맞춰 손뼉을 치며 수차례의 커튼콜 끝에 앙코르곡을 유도했고, 시향은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아를의 여인' 모음곡 중 '파랑돌'(farandole)로 화답했다.

2

글이준서 뉴욕 특파원

‘민요 폐창 열풍’ 민요록밴드 씽씽 뉴욕무대 올라

‘조선의 아이돌’로 불리는 민요 록밴드 ‘씽씽’(Ssing Ssing)이 미국 공연에 나섰다. 씽씽은 지난 12월 7일 저녁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애머슨 도쉬 갤러리’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이어 9일 저녁에는 뉴욕 브루클린의 복합문화공간 ‘브루클린 보울’에서 공연을 펼쳤다.

혼성 6인조인 씽씽은 소리꾼 이희문·신승태·추다혜와 음악감독 장영규(베이스), 이철희(드럼), 이태원(기타)으로 구성됐다.

만형 장영규는 한국적인 ‘아방-팝’(Avant-pop)의 선구자로 불리는 밴드 ‘어어부 프로젝트’ 멤버이자 영화 ‘도둑들’, ‘곡성’, ‘염력’ 등의 음악을 만든 뮤지션이다. 소리꾼 이희문은 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다.

이번 공연을 추진한 미국 ‘리듬 파운데이션’ 측은 “한국 전통 음악들을 록, 디스코 등의 음악들과 조합해 미국 현지인들에게도 신선하고 익숙한 음악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씽씽은 ‘국악은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깨뜨리면서 한국민요를 록 음악과 함께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 이른바 ‘민요 폐창’ 열풍을 일으켰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외국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욕 최고의 월드뮤직 페스티벌인 ‘글로벌 페스트’를 통해 주목받았고, 공영 라디오 NPR의 간판 프로그램인 ‘작은 책상 콘서트’(Tiny Desk Concert)에 초대되기도 했다. 아델, 존 레전드, 오요마, 미겔 등 쟁쟁한 뮤지션들이 다녀간 무대다.



민요 록밴드 ‘씽씽’ (Ssing Ssing)

사진 / 뉴욕한국문화원 제공



사진 / 지쿠마소보 홈페이지 캡처

일본에서 일본어판으로 발간된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발간된 지 나흘 만에 3쇄 인쇄가 결정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출판사 지쿠마소보(筑摩書房)는 일본어판 '82년생 김지영'이 한국 여성들의 현실을 기록한 한국의 밀리언셀러라는 점에 주목, 지난 12월 8일 발간과 동시에 2쇄 증쇄를 결정했다.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출판사 측은 발간 후 나흘 뒤인 12일 다시 3쇄 증쇄를 하기로 했다.

이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책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문학연구'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구입 의향을 밝힌 '구입하고 싶은 책' 순위에서는 5위에 올라 있다.

'82년생 김지영'은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을 상징하는 서른넷 전업주부 김지영 씨의 삶을 통해 여성이 학교와 직장에서 받는 성차별, 고용시장에서 받는 불평등, '독박 육아'를 둘러싼 문제점 등을 사실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준다.

출판사 측은 이 책에 대해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 방탄소년단의 RM, 소녀시대의 수영이 언급했으며 한국의 국회의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식 때 선물한 소설이라고 소개했다.

3

글 김병규 도쿄 특파원

‘82년생 김지영’ 日서도 돌풍 조짐 아마존 아시아 베스트셀러

4

글 김병규 도쿄 특파원

위안부 할머니 지원 디자인 브랜드 마리몬드, 日서 판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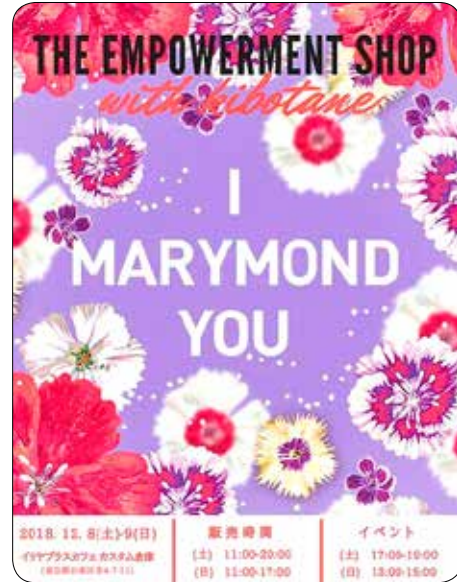


사진 / 희망의씨앗기금 홈페이지 캡처

일본 시민단체 희망의씨앗기금이 홈페이지에 올린 마리몬드 제품 오프라인 판매 소개 포스터

위안부 피해자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패션 제품을 만들어온 한국 브랜드 마리몬드가 일본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일본 시민단체 희망의씨앗기금은 '마리몬드 재팬'을 만들어 지난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마리몬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희망의씨앗기금은 일본 시민사회 인사들이 올바른 위안부 역사를 일본 젊은이들에게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단체는 온라인 판매 시작과 함께 도쿄 다이토(台東)구에서 오프라인 판매 이벤트도 진행했다.

마리몬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꽃 디자인으로 휴대전화 케이스, 의류, 가방, 문방구 등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다. 제품은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 K팝 스타들이 착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트와이스의 멤버 다현(본명 김다현·20)이 마리몬드의 티셔츠를 입은 것을 두고는 일본 극우 성향 정치인이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희망의씨앗기금은 마리몬드에 대해 홈페이지에 "패션과 인권문제를 연결해 목소리를 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존경해야 할 인권활동가다"라고 적었다.

이 단체는 제품 판매 수익금을 성폭력근절 운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희망의씨앗기금은 작년 세상을 떠난 일본 거주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를 모티브로 한 패랭이꽃 디자인 제품도 판매한다. 송 할머니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로는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던 인물이다.

5

글 심재훈 베이징 특파원

'반한감정' 사라진 中리장서 한중 문화교류 '훈훈'



대한항공이 중국 어린이들에게 선물한 9번째 '꿈의 도서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해 반한감정이 있었던 중국 윈난(雲南)성의 유명 관광지 리장(麗江)에 한중 문화 교류 행사가 열려 최근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반영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월 10일 오전 윈난

성 리장 시 바이사의 소학교에서 '꿈의 도서실' 기증행사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주중 한국문화원이 리장시 정부와 함께 문화 공연을 했다. 대한항공의 기증식 행사에는 고광호 중국지역본부장을 비롯해 한재혁 주중 한국문화원장, 홍상취엔 리장시 교육국 부국장과 현지 학생 수백 명이 참석했다.

바이사 소학교는 중국의 소수 민족인 나시족의 옛 수도에 있는 294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다.

대한항공은 이날 낯고 허름한 도서실의 책상과 의자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도서실을 채울 3천여 권의 도서와 PC, 체육용품도 기증했다. 아울러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학교 운동장에서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도 진행돼 중국 학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리장시 정부와 주중한국문화원의 주최로 리장 운령극장에서 1천명 관객을 대상으로 한국과 리장 현지 전통무용으로 구성된 문화 공연도 이뤄져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에만 해도 리장에는 사드 여파로 일부 상점에서 '롯데 불매'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반한감정이 남아있는데 불과 1년여 만에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다. ●